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86장 다같이

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 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 이 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다니엘 10:10-21 인도자

-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 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 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 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설 교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10-21)

이번 계시는 바사 고레스 왕 3년에 일어났다.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다.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물질 지원도 약속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서 유대인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했다. 귀환자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BC 537년에 총독 스룹바벨이 1차 귀환자를 인솔해 왔지만 겨우 5만 명에 불과했고, 성전 재건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오죽했으면 두 선지자(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독려했겠는가. 바벨론에 남은 노년의 다니엘은 중보기도, 금식, 절제, 겸손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 이레(21일) 동안 기도했다. 그가 한 부분금식은 영적인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포도주를 금하고 좋은 떡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는 방식이다. 다니엘은 외로웠고 피곤했고 실망스러웠고 연약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도 있었다. 10장은 11~12장에 보여줄 환상을 준비하는 단계다. 즉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수신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중에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의 복식은 왕의 복식을 연상시켰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했다. 요한도 그 형상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니엘도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사람은 계시를 전달할 천사를 의미하는 듯하다. 다만 이 계시가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계시의 영광스러움, 강함, 권세, 순결함,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차용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이때 그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불렀다. 다니엘은 먼 미래에 전 세계와 유대 민족에게 나타날 일을 계시받는 자로서 은총 받은 자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면서, 그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결단과 함께한다. 사람이 결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즉 다니엘은 결심할 뿐만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하게 기도했다. ▶하지만 응답이 21일 동안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주”는 곧 천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이 천사를 도와주었기에 지금에야 도착했다고 한다. 이 장면은 영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영계에 숨어 있다. 그리고 영계에서는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이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사실 천상의 전쟁을 반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들은 모두 악한 것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에게 힘을 북돋는 것이다. ▶천상의 것에 접촉한 인간은 육적인 힘, 지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된다. 경건하게 살아온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다니엘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 천사가 그의 입술을 만지자 비로소 천사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천사가 강건함의 복을 선포하자 다니엘은 강건하게 되었다. 천상의 음성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향후 많은 환난과 지독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대규모 전쟁의 공포도 있을 것이다. 바사 제국이 끝난 뒤에는 헬라 제국이 와서 유대민족을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와 선민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가엘 천사도 전사로서 싸울 것이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다니엘은 이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 알고 전달해야 한다.